사찰과 민중 잇고 아픔 어루만져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④ 반가운 소식을 알리다, 까치

2026년 첫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설 연휴다. 추석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설날 하면 떠오르는 동물은 무엇일까? 그렇다. 바로 까치다. 설날 노래 가사에도 등장하듯 까치는 설날을 대표하는 존재다. 반가운 소식을 알리는 까치처럼 새해에도 반갑고 행복한 일들만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에도 까치가 있을까? 물론이다. 대표적으로 신라의 화가 솔거(率居)가 그린 황룡사(皇龍寺) 노송도(老松圖)에 날아들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까치 이야기가 있다. 이는 솔거의 천재적인 그림 솜씨와 더불어 까치와 불교의 관계를 말해 주는 대표적인 기록이다. 이외에도 까치는 동양 신화에 빈번히 등장하는 친숙한 존재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불교문화와 신화 속 까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전 조속필 화조도의 까치(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운문사 창건을 도운 조력자

불교에서도 까치는 중요한 소식을 알리는 존재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기록이 바로 청도 운문사(雲門寺) 창건을 도운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까치 이야기다. 어느 날, 중국 유학을 마친 신라 보양(寶壤) 스님은 서해 바다를 건너는 도중 용왕에게 초대받아 용궁에 머무르게 된다. 보양 스님은 용궁에서 불경 염송과 법문을 용왕에게 베풀었다. 얼마 뒤, 이제 막 떠날 채비를 하는 스님에게 용왕이 "지금 삼국에 불법에 귀의한 군주가 없소. 내 아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 작갑(鵲岬)이라는 장소에 절을 지으면 나쁜 일을 물리치고 불법에 귀의한 군주가 등장할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금라가사(金羅袈裟)를 선물하고 아들 이목(梨木)에게 보양 스님을 모시게 했다.

이렇게 용궁을 떠난 보양 스님과 이목이 어느덧 현재의 청도 지역에 다다르게 됐다. 그런데 보양 스님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까치 무리가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을 계속 쪼고 있던 것이다. 보양 스님은 마침 용왕이 했던 작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이에 까치가 쪼아 댄 바닥을 파 보니 수많은 벽돌이 있던 것이다. 이에 보양 스님이 그 벽돌로 절을 지은 뒤 작갑사(鵲岬寺)라고 이름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 과연 불법에 귀의한 고려(高麗)의 군주 왕건(王建)이 작갑사를 찾아와 운문선사(雲門禪寺) 편액과 수많은 땅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 운문사에는 위 이야기를 알려 주는 작압전(鵲鴨殿)이라는 법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내부에는 통일신라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과 사천왕상이 봉안돼 있다. 창건 설화 속 까치는 보양 스님이 절을 지을 수 있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운문사 창건 설화 외에도 불교경전 속 까치는 재난이나 사건 등을 미리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홍명집(廣弘明集)〉에는 까치가 울면 적이 쳐들어올 징조라고 했으며, 〈속고승전(續高僧傳)〉에 실린 당(唐)나라 주력(住力) 스님의 죽음을 알린 것도 까치의 슬픈 울음소리였다. 이처럼 불교문화 속 까치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중요한 소식을 미리 알려 주는 예언자로 표현된다.

사랑의 징검다리

최근 복원된 경주 월정교(月精橋)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야경명소다. 이 월정교에는 신라를 대표하는 고승 원효 대사(元曉大師)와 요석 공주(瑤石公主)의 러브스토리가 전한다. 월정교를 건너다 물에 젖은 원효 대사가 향한 곳엔 요석 공주의 거처인 요석궁(瑤石宮)이 있었고, 이곳에서 두 남녀는 인연을 맺고 신라 대학자 설총(薛聰)을 낳게 된다. 이처럼 예로부터 다리는 먼 거리를 쉽게 왕래할 수 있기에 남녀가 서로 만나는 장소로 그려지곤 한다.


양산 통도사 명부전 호작도 벽화(조선 후기).


청도 운문사 작압전(조선 후기).


남원 광한루원 오작교(조선 후기).

불교서 까치 중요 소식 알리는 존재
호작도서 피지배층 고통 치유 역할도
범어사, 선암사 등 사찰벽화로 표현
민초 어루만지는 불교 포용력 드러내

다리는 만남의 장소인 동시에 이별의 아픔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를 보여 주는 사례를 동양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리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까치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천을 곱게 짜기에 직녀(織女)라고 하였다. 직녀가 성장해 어엿한 여인이 되자 그의 아버지는 총각을 사위로 맞이했는데 소를 끌고 다니는 목동이기에 견우(牽牛)라고 불렀다. 이렇게 두 청춘은 결혼을 시작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제(天帝)가 두 부부에게 "너희들의 천직은 소에게 풀을 먹이고 천을 짜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 용서할 수가 없구나! 이제부터 너희들은 갈라져 칠월칠석(七月七夕)에 한 번씩만 만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던 두 부부는 슬픈 생이별을 했고, 은하수를 중심으로 견우는 동쪽에, 직녀는 서쪽으로 끌려가 묵묵히 자신의 본업에만 매진했다. 하지만 이별의 아픔은 어쩔 수 없는 법,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진 두 부부는 날이 갈수록 그리운 정이 가슴에 사무쳤다. 어느덧 칠월칠석이 됐다. 드디어 두 부부는 만나는 것이 허락됐지만 은하수를 건너지 못해 한없이 서로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견우와 직녀의 슬픈 눈물은 비가 돼 내렸고 이 소식을 들은 까치와 까마귀는 두 사람의 슬픈 사연을 해결하고자 은하수 근처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다리가 돼 드리겠습니다. 얼른 등에 올라타세요." 까치와 까마귀 떼가 만든 다리 덕분에 견우와 직녀는 드디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칠월칠석이 되면 까치들은 이들 부부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고 한다. 바로 사랑을 연결해 주는 오작교(烏鵲橋)가 되기 위해서 말이다.

사찰에 자리 잡은 민초의 대변인

얼마 전 필자는 '산신' 편에서 전세계를 휩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호랑이 더피와 산신도의 호랑이가 판박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물론, 산신도에서 주목할 대상은 호랑이 더피였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는 까치 수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로부터 시작된 두 동물의 케미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 열풍에 지대한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더피와 수지는 까치와 호랑이 그림, 즉 민화 호작도(虎鵲圖)를 모티프로 탄생했다. 그런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더피와 수지는 호작도의 겉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다. 연출되는 행동과 성격까지 호작도를 빼닮았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자. 작품 속 더피는 화분을 넘어뜨리거나 멍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응시하는 등 늘 어벙하고 덜렁대는 리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지는? 실수투성이인 더피를 한심하게 쳐다보는가 하면 잔소리를 퍼붓거나 자기 뜻대로 조종하기도 한다. 이런 수지가 얄밉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호작도의 성격 그 자체다.

본래 호작도는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벽사(辟邪)의 성격을 지닌 문배도(門排圖)였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그 성격이 변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용맹한 호랑이는 사시에 덧니투성이, 맹한 미소를 짓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이에 반해 까치는 그 눈빛과 기세가 사나워지며 호랑이에게 밀착해 덤벼드는 모습으로 변한다. 여기서 호랑이는 지배층인 양반을, 까치는 피지배층인 서민을 상징한다. 결국 민화 호작도는 벽사의 용도와 함께 부패한 양반을 풍자하는 성격까지 지니게 된 것이다. 당시 고통받던 민초들은 민화 호작도를 그리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불교에서 민화 호작도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호작도가 조선 후기 불교미술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바로 사찰 벽화로 말이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법당각 곳곳에는 호작도 벽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양산 통도사부터 부산 범어사, 순천 선암사, 대구 동화사 등 그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처럼 호작도가 사찰 벽화로 표현된 건 불교에 반영된 벽사 관념과 함께 당시 고통받는 민초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불교의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치며

반가운 소식을 알려 주는 까치, 까치의 이러한 관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교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 전반에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교에서 까치는 사찰 건립에 일조하면서 큰 사건을 미리 알려 주고 미술에서는 민초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해결사 역할까지 자처했다. 각박하고 살기 어려워진 요즘 같은 시기, 까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반가운 소식이 오길 희망하는 건 어떨까?



김용덕 작가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NEW 신상품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